계리적가정과 IFRS17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방안

김호균 Ph.D. | 삼정KPMG금융보험계리 전무(전문위원) | 2026. 10. 29.

목차 (Agenda)

Chapter I

문제제기

- IFRS17 도입과 부채 평가 패러다임 변화
- 일반회계의 감독회계 추종

Chapter II

이론적 배경

- IFRS17 부채 측정구조 (BEL, RA, CSM)
- 계리가정과 예실차 메커니즘
- 일반회계 vs 감독회계

Chapter III

감독회계 추종 현황

- 주요 보험사 예실차 변동성 추이
- 감독회계 추종이 발생한 원인
- 예실차 변동성의 핵심원인

Chapter IV

질적특성 진단 (목적적합성)

- 개념체계상 목적적합성
- 확인가치 훼손
- 미래 예측가치 상실

Chapter V

목적적합성 강화방안

- 일반회계 목적의 계리가정 수립 및 차이공시
- 계리가정 보고서 및 공시 인프라 강화
- 보험계리사회 역할 및 외부감사인 감사 강화

Chapter VI

결론

- 보험회계의 신뢰성 제고
- 보험산업 밸류업 지속가능성

IFRS17 전면 시행과 보험부채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

과거 원가평가 vs 현행추정치(Current Estimate)

- 2023년 IFRS17 전면 시행
- 과거(IFRS4) 보험부채는 '계약 시점의 원가'로 고정 측정한 반면
  현행(IFRS17)은 매 결산시점 '현행추정치'로 전면 재평가
- 매 보고기간 최신 시장 상황과 통계를 반영해 재평가
- 미래 현금흐름 추정이 부채·손익에 즉시 직결되는 구조

⇨ 해지율, 손해율, 사업비율 등 계리적 가정(Actuarial Assumptions)의 역할 중요

예실차 관련 시장의 불신

- 예실차(Actual vs Expected)는 보험금과 사업비 **예**상치 vs **실**제 발생치 간의 **차**이
- 계리적 가정 설정의 타당성을 사후 검증하는 핵심 지표
- 발생한 예실차가 당기손익(보험손익)에 즉시 직접 반영

- 예실차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서
  '고무줄 회계', '실적 들쭉날쭉'이라는 회계 불신 초래

일반회계의 감독회계 추종

회사의 자율적·전문적 판단에 따른 계리적 가정설정 부재

- IFRS17의 본질적 지향점 : 원칙중심(Principle-based) 회계
- 그러나,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이
  사실상 일반회계에서도 획일적인 표준 규정으로 작동

일반회계의 맹목적 감독회계 추종

- 일반회계(K-IFRS) 재무제표가 보수적 감독회계의 가정을 그대로 차용
- 감독당국이 감독목적으로 계리적 가정의 기준을 변경하면
  일반회계 당기손익이 즉각 급변

⇨ 실적 변동의 외생화 구조 고착
재무제표가 기업의 '경제적 실질'이 아닌 '감독 목적'을 주로 반영하는 결과초래

계리적가정과 IFRS17 보험부채의 측정 구조

보험료산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하는 **영업보험료** = 순보험료 + 보험설계사 수당 등을 지급할 사업비 재원 + 보험회사가 가져갈 마진

부채평가

보험부채 = ∑미래 현금유출액의 현가 – ∑미래 현금유입액의 현가 + 리스크 + 마진

= {(**미래현금흐름**의 확률가중 추정값❶ + **현재가치** 반영❷) + **위험조정**❸} + **보험계약마진**❹

= 최선추정(**BEL**) + 위험조정(**RA**) + 보험계약마진(**CSM**)

손익분석 보험계약마진$_{t=0}$ = ∑현금유입액 기대현가 - ∑현금유출액 기대현가 – 위험조정

= - ($BEL_{t=0}$ + $RA_{t=0}$) = - 이행현금흐름$_{t=0}$

부채 요소 1

BEL (최선추정부채)

- Best Estimate Liability
- 미래현금흐름(예상 보험금, 해약환급금, 사업비, 보험료 등 현금 유출/유입액)의 현재가치를
- '회사가 최선을 다해 추정한 최적 계리가정'에 따라 측정

부채 요소 2

RA (위험조정)

- Risk Adjustment
-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측정된 위험 마진
- 계리적 위험 등 비금융위험에 대한 완충 역할

부채 요소 3

CSM (보험계약마진)

- Contractual Service Margin
- 미실현 미래이익의 저량(stock)
- 최초 계약시점 BEL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기대이익 총량
- 계약 기간 서비스 제공에 따라 상각되어 당기 보험수익으로 점진 인식

⇨ 예상과 다른 결과(예실차)는 당기손익 반영 or CSM 조정

계리가정과 예실차 구조

가정 설정 성향에 따른 CSM과 손익 영향

- 낙관적 가정 설정 시 (Optimistic)
  부채(BEL) 저평가 → CSM(미래이익) 과대 계상
  초기 CSM 상각익은 증가하나, 사후 실제 사고·해지 증가로 대규모 '예실차 손실' 유발
- 보수적 가정 설정 시 (Conservative)
  부채(BEL) 고평가 → CSM 과소 계상
  초기 CSM 상각익은 감소하나, 사후적으로 '예실차 이익' 발생
- CSM 상각익과 예실차 손익은 완전한 상반(Trade-off) 관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낙관적, 보수적 가정의 유불리는 시간경과에 따라 해소되는 구조

가정의 본질적 지향점: 최선추정과 목적 부합

- 최선추정(Best Estimate)의 당위성
-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최선을 다해 중립적으로 추정
- 사전적 추정과 사후 실적 간의 예실차를 '최소화'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

- '가정이 보수적인가, 낙관적인가?'의 이분법 탈피
- '어떤 목적(건전성 감독 vs 기업 실질 표현)에 맞는 가정인가?'가 회계의 본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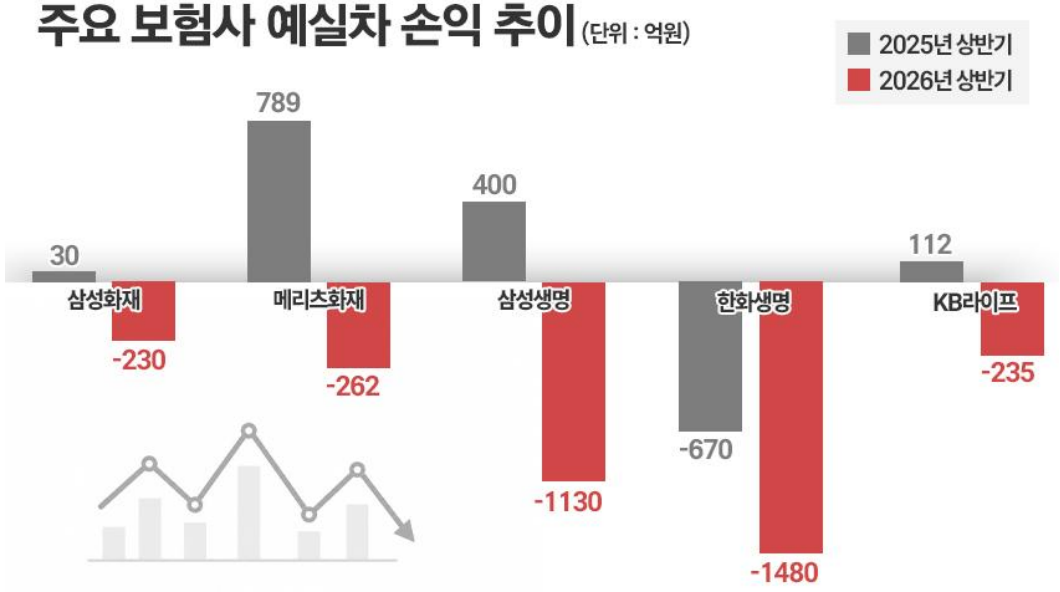
계리적가정 측면에서 일반회계(K-IFRS) v.s. 감독회계(SAP or K-ICS)

일반회계기준(GAAP) **IFRS 17 (보험계약)**	≒	감독회계기준(SAP) **보험업법**	≠	건전성회계기준(PAP) **신지급여력제도**
보험부채 평가, 손익 인식 등에 대한 일반 회계처리 원칙 제시		보험사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 회계처리 기준 제시		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자산·부채 (시가)평가 기준 제시

구분	일반회계(GAAP)	감독회계(SAP) / 건전성회계(PAP)
법적 기준	K-IFRS (원칙 중심 회계)	보험업감독규정 (K-ICS 등 건전성 규제)
주 이용자	일반 투자자, 주주, 계약자, 애널리스트	금융감독당국, 정책 입안자
기본 목적	기업의 '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고 중립적으로 표현'	'보험계약자 보호' 및 위기 상황 대비 '지급능력 확보'
가정의 원칙	회사 고유 경험통계에 기초한 '중립적 최적추정(Best Estimate)'	스트레스 시나리오를 감안한 '보수적(Conservative) 표준 가정'
정보 효용	미래 현금흐름 예측 및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 지원	모든 보험사에 일괄·강제 적용되는 규제적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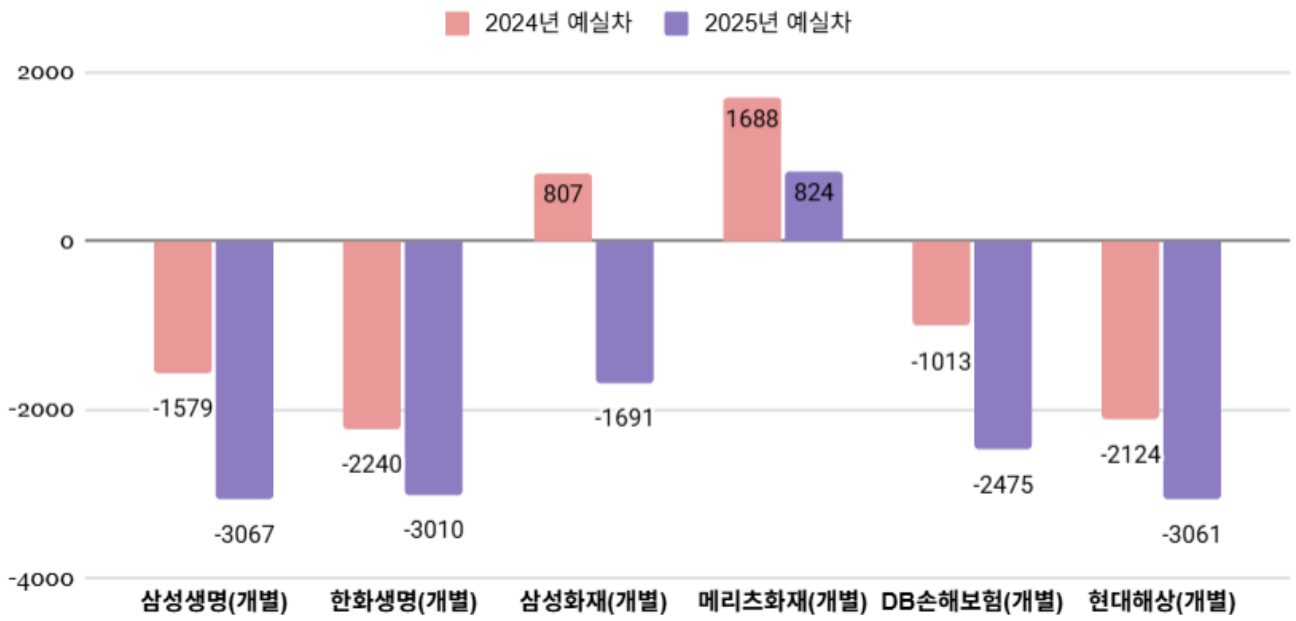
최근 예실차 손익 변동 추이

최근 반기별 예실차 손익 변동 추이 (2025상반기 vs 2026상반기)



※ 여전한 예실차 손실, 보험사 본업 실적 회복은 언제쯤(2026.8.13. 시사저널e)

2024년·2025년 주요 보험사 예실차 추이(단위: 억원)



※ 실적 회복 열쇠된 예실차… 보험업계, 올해 최대 과제 부상(2026.2.24. 파이낸셜투데이)

감독회계 추종이 발생한 원인

원인 01

보험회사의 역량 한계

- 유럽 vs 우리나라의 구조적 차이
  이미 시가평가를 하고 있었던 유럽은 회계변경만 하면 되었으나,
  우리나라는 원가평가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병행했어야 했음
- 글로벌 선례 부재
  전면 도입국으로서 참조 가능한 해외 적용사례 부재
- 시장 불신과 안전판 요구
  제도도입초기 낙관적 가정 논란으로 감사인이 당국 기준을 안전판으로 요구

원인 02

이중결산 업무 부담

- 방대한 현금흐름 시스템 부하
  IFRS17과 SAP을 달리할 경우 계리시스템의 연산 부하 감당 곤란
- 물리적 결산 일정 촉박
  공시 일정의 한계와 검증 전문 인력 부족
- 세법상 규제 연동
  현재 법인세 납부를 위한 일부 항목이 감독회계(SAP)에 기반
  단일 가정으로 양 결산을 통합 처리하려는 실무적 편의추구 유인 작동

원인 03

규제·법률 리스크 완화

- 회계 불확실성 선제 해소
  당국 지침 준수를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입증 부담 감소
- 외부감사 마찰 완화
  감독 가이드라인 준수로 외부감사인 및 규제당국과의 감리 리스크 최소화
- 공시 시장 대응 용이
  공시 재무정보에 대해 '당국 기준 준수'라는 대외 명분 확보 용이

가정변경 주석 공시와 손익 변동의 외생성

사업보고서 주석 공시

- 사업보고서상 가정변경효과 공시 항목
  해지율 가정 변경효과
  위험률(손해율) 가정 변경효과
  사업비율 가정 변경효과
  당기 발행 보험계약 및 기보유 계약 부채의 재측정

- 회사 실질(영업 경쟁력 등)은 동일함에도 가정이 조금만 수정되어도 대규모 손익 변동

외생적 기준 연동과 실적 왜곡

- 가정이 회사의 '독자적 경험'이 아닌 당국의 '외생적 가이드라인'에 연동
- 당국 발표 시점에 맞춰 손익이 대규모로 변동하는 비정상 구조
- 외생적 규제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폭 확대

⇨ 예실차 변동성의 핵심 원인이 보험사의 자율 추정 오차가 아니라 '감독회계 가정 추종'

사례 :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

사례

- (배경) 단기납(5·7년납 등) 종신보험의 환급률 마케팅 과열
- (조치) 보수적 표준 하한선 제시
  납입완료 전후 시점의 해지율 가정에 대해 보수적 최저 기준선 규정
- (부작용) 회사 고유의 경험통계 무력화
  각 보험사의 실제 가입자 행태 분포나 실제 세부데이터, 계리적 추정 역량 무력화

영향

- 부채 평가액 및 CSM의 급격한 변동
  장기 유지 계약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고 CSM이 감소
- 실제 계약 유지율이 양호한 우량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보험사일 경우 경험데이터 부재로 자사경험률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회계에서 제시된 가정을 추종하면 손익 악화 착시 발생
- 건전성 감독 목적의 가정이 일반회계 손익의 심각한 변동성 초래

예실차 변동성의 핵심 원인

외생적 감독 기준에 따른 손익 예측가능성 저하

- 고무줄 실적의 구조적 원인은 경영 실패가 아니라 외생적 제도 개입에 따른 결과
- 자율성 상실로 인해 원칙중심 회계하에서 보험사가 자체 최선추정을 구축하지 못함
- 규제 변경 때마다 손익이 왜곡되어 회계 연속성 단절되고 당국 규제 캘린더 종속

자본시장 신뢰성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

- 재무제표로 기업 본질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→ 투자자의 시장 이탈 우려
- 배당 예측가능성 상실 및 보험업 밸류에이션 저평가 → 주주가치 훼손 및 저평가 고착
- 단순 공시 보완을 넘어 일반회계 계리가정의 독립성 회복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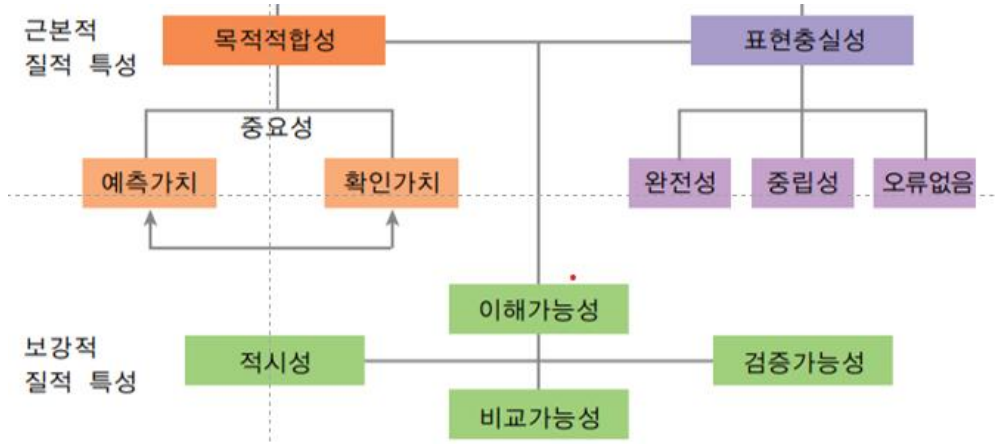
재무보고 개념체계상 목적적합성(Relevance)

기준서

1 (생략) ~ 이 기준서의 목적은 이러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 이러한 정보는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,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.

BC20 (생략) ~ IASB는 이행현금흐름에 대해 시장과 일관된 현행가치측정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.

재무정보 개념체계



근본적 질적특성: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

-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양대 축
  목적적합성 (Relevance)
  표현충실성 (Faithful Representation)

- 목적적합성의 정의
  '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'
  재무정보가 이용자의 미래 전망이나 과거 평가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함

목적적합성의 2대 구성 요소

1. 확인가치 (Confirmatory Value)
-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화시키는 가치
- 경영진의 과거 추정과 사업 계획의 실현 여부 사후 검증

2. 예측가치 (Predictive Value)
- 미래 결과를 스스로 예측하는 투입요소로 기능하는 가치
- 현재 손익이 미래 수익성의 지표로 기능해야 함

추종의 목적적합성 훼손 경로 (1): 확인가치 훼손

예실차의 본래 기능: 추정의 사후 검증

- 정상적인 회계 메커니즘
  회사가 과거에 최선을 다해 세운 '독자적 계리가정 ' 을 이후 실제로 발생한 '보험금 및 사업비 실적 ' 과 비교함으로써 확인가치 창출
- '회사의 계리적 추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했는가?' 평가
- 경영진의 예측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

감독회계 추종 시 확인가치 훼손

- 예실차가 '회사 경험의 확인'이 아니라 '감독 가이드라인과 실제의 차이'로 변질
- 평가 기능의 상실
  이용자가 예실차를 보아도 회사 추정의 정확성을 전혀 알 수 없음
  경영진의 계리 역량에 대한 사후 피드백 경로 차단

추종의 목적적합성 훼손 경로 (2): 예측가치 상실

손익과 기업 펀더멘털의 괴리 심화

- 외생적 일정에 따른 가정 변경
  당국의 규제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에 따라 일방 변경
- 손익의 성격 변질
 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'미래 수익력'이 아닌 '감독제도 변화'를 반영
- 실적 변동의 외생화
  기업의 본원적 영업 활동과 무관한 정책 이벤트로 손익 변동 확대

예측가치의 사실상 소멸

- 미래 현금흐름 예측 불가능
  현재 손익을 바탕으로 향후 정상 손익과 배당 추정 곤란
- 재무제표의 의사결정 유용성 마비
 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예측할 수 없음
  예측가치 소멸은 자본시장 정보로서의 치명적 기능 상실

추종의 목적적합성 훼손 경로 (3): 근본적 非목적적합성

정보 생산 목적의 태생적 불일치

- 감독회계용 가정의 설계 목적은 건전성 평가 및 위기 상황에서의 지급불능 방지이므로 보수적인 조건(가혹한 조건)을 전제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일반회계 이용자의 목적에 부적합
- 투자자의 목적: 공정한 가치 평가, 미래 주주환원율 및 정상 수익률 판단
- 계약자의 목적: 회사의 안정적인 계속기업 지속가능성 평가

목적 전용(轉用)이 초래하는 오류

- 타 목적 정보의 무비판적 차용
-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보수적 규제 정보를 일반회계에 그대로 주입
- 태생적 비(非)목적적합성 발생
- 개별 수치 오차를 넘어, 정보 생산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긋남
- 의사결정 출발점부터 왜곡을 내포

일방적 추종 탈피: 일반회계 목적용 계리가정 수립

추진 방향 01

계리가정 기반 분리

- 감독회계(SAP): 건전성 확보용 보수적 규제 가정

  일반회계(K-IFRS): 편의(bias) 없는 '중립적 최적 추정'
-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왜곡 없이 포착

추진 방향 02

차이의 정당화와 조정

- 독자 가정과 감독 가이드라인이 다를 경우 차이와 근거를 명확히 공시
- 가이드라인을 강제 규정이 아닌 '참조 기준(Minimum Reference)'으로 재정립
- 회사의 합리적 전문 판단 존중

추진 방향 03

원칙중심 취지 복원

- 책임과 재량의 환원
- 가정 설정의 1차적 책임과 재량을 회사에 환원
- 자율성 부여와 동시에 사후 결과에 대한 엄격한 책임성 강화
- 계리 거버넌스의 정상화 구축

전제조건 : 공시 강화

제도 연계

계리가정보고서와 주석공시 연계

- 계리가정보고서(2026.12. 시행)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그 핵심 내용을 주석에 연계 공시
- 산출근거·변경사항·검증결과 감독원 제출
- 주석 공시와의 연계
- 시장이 가정의 정합성을 직접 검증

공시 세분화

예실차 공시 세분화

- 가정 합리성 검증 지표화
- 예실차의 정의 및 산출기준 명확화
- 담보별·가정별 분해 공시
- 위험손해율, 해지율, 사업비별 분해
-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 공시 확대

표준화

차이공시의 제도화

- 일반회계 가정 vs 감독 가이드라인 간 차이와 재무 영향 일목요연하게 표시
- 시장 규율 메커니즘 확립
- 독자 가정의 투명성, 비교가능성, 검증가능성 동시 확보
- 자의적 이익조정 의혹 원천 차단

내부통제 및 한국보험계리사회 역할 강화

1. 실무기준·모범규준 제정

- 감독규정과 분리된 일반회계 최적추정 실무기준 제정
- 보험사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통계적 일관성 제고

2. 독립적 동료검토 (Peer Review)

- 선임계리사 외에 계리사회 차원의 외부검증 체계 구축
- 독자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 시장규율 작동 지원

3. 전문가 윤리 및 감독기구 협업

- 계리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, 윤리기준 강화
- 계리감독 선진화 과정에서 기준 설계 파트너로 참여

4. 내부통제 및 책임경영

- 가정 변경 사유·재무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의무화
- “감독회계와 상이한 일반회계 가정”의 결과가 보험부채 감소, 재무성과 개선인 경우 외부 재무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소명절차를 마련하고, 사후 단기실적 용도 활용이 입증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CEO 등의 책임구상

외부감사인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

강화방안 04

전문성·독립성 확보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

- **회계법인·계리법인 협업 결산감사 체계:** 고도의 계리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(In-house Actuary 및 독립 계리법인)을 필수로 투입하여 형식적 수치 대조를 탈피한 심층 결산감사 실시
- **표준 감사시간 및 품질관리 강화:** IFRS17 부채평가 복잡성에 부합하는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하고 독립성 의무 준수
- **부실감사·검증 시 불이익 처분 강화:** 당국의 결산 외부검증에 대한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, 부실 감사 적발 시 외부감사인·계리법인에 대한 제재(업무정지, 감사인지정 제외, 과징금 등) 대폭 강화

감사인 추가역할

독자적 가정수립 지원을 위한 감사인 추가 역할

- **가정수립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검증:** 보험사의 경험통계 추출, 데이터 완전성, 계리모델 검증 및 가정 승인 거버넌스의 작동 유효성을 독립적으로 감사
- **독립적 벤치마킹 및 민감도 분석(Sensitivity Test):** 산업 평균 통계 및 거시경제 시나리오와 대조하여 회사의 독자 가정이 과도한 낙관이나 편향을 갖지 않는지 객관적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
- **핵심감사사항(KAM) 기술 및 차이공시 적정성 의견 부여:** 주요 가정의 불확실성과 검증 절차를 감사보고서에 상세 기술하고, 독자 가정과 감독 가이드라인 간 차이(Reconciliation)의 타당성에 검증의견 제시

보험업 회계 신뢰성 제고와 밸류업(Value-up) 지속가능성

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

- '역할의 분리'가 가져올 제도적 완성
- 감독회계(K-ICS)는 '계약자 보호 및 건전성 방어'에 충실
- 일반회계(K-IFRS)는 '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주주가치 표현'에 충실할 때 IFRS17 취지 완성
-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
- 국내 보험업종의 만성적 저PBR은 회계 불투명성과 극심한 손익 변동성이 주된 원인 중 하나
- 목적적합한 독자 계리가정 구축과 투명한 차이공시(Reconciliation)는 밸류업의 핵심 전제
- 전문가 집단과 정책당국의 공동 과제
- 금융당국, 보험업계, 한국보험계리사회, 외부감사인이 4자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독립적 검증 정착

➡ **일반회계의 감독회계 추종을 탈피하여 경제적 실질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보험회계 신뢰성 회복의 확실한 길임**

감사합니다

계리적가정과 IFRS17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방안

Q & A

본 자료는 특정 내용에 대한 삼정회계법인과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아닙니다. 본 자료를 활용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삼정회계법인과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의 책임은 없습니다.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,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삼정회계법인과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의 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, 해당 정보가 수령한 시점이나 향후에 정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. 본 자료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근거한 적절한 삼정회계법인과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의 전문가의 자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.